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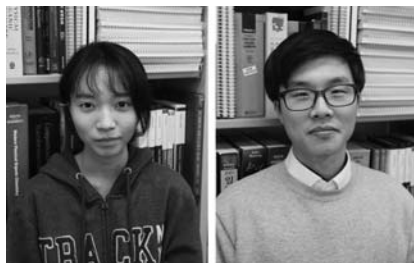
친환경 고분자 재료 합성법 개발

전북대 화학과 문보름·이규선씨
고분자 화학 최상위 저널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화학과 유기 및 고분자 합성 연구실(지도교수 김경곤)의 학부생 연구팀이 고분자 화학 분야 최상위 저널에 논문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화학과 문보름·이규선 학생이다. 이들은 세계 최초로 기능성 블록 공중합 고분자를 고체상에서 합성하는 데 성공해 고분자 화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영국 왕립화학회의 '고분자화학(Polymer Chemistry)' 최신 온라인판에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화학 합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환경오염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기계합성법을 활용해 생리합성 고분자의 대표 재료인 폴리 젯산 블록 공중



전북대 화학과 문보름(왼쪽)·이규선(오른쪽)씨

합체를 제조했다. 유해한 용매 사용에서 자유로운 생체 재료 합성의 새로운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 성과는 문보름·이규선 학생이 학부생 연구 과제로 2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로 의미가 깊다. 공저자로 참여한 UST

및 한국화학연구원 소속의 정해민씨 역시 전북대 학부 출신으로, 그야말로 전북대 젊은 연구원들의 힘으로 일궈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지난 5년간 CK-1 지역 기초과학 교육 연구 허브 구축 사업단과 특성화 우수학과 사업(단장 이효중 교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학부생 연구 참여 및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실무, 연구 중심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다.

김경곤 지도교수는 "미래를 이끌 연구 동량을 조기에 배출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나노 소재 원천기술개발 사업 및 기후 변화 대응 기초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장은성 기자



정읍 소성면에 연말 불우이웃돕기 잇따라

소성면(면장 유영순)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토끼풀농장을 운영하는 청아영농조합(대표 최대석)에서 지난 14일에 성금 100만원 기탁을 시작으로, 소재지에 있는 소성교회(목사 심상팔)에서도 성금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 기부했다.

또한, 샘골목장(대표 오준길)에서도 지난 20일에 100만원을, 다해건설(대표 한안수)과 주동유우소(대표 문경태)에서도 각각 50만원씩 기부하였으며, 기부 된 성금은 정읍시 행복바이러스 전염모금 계좌로 지정기탁 되어 소성면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소성면의용소방대(회장 송기흥)에서 백미 20kg 40포, 소성발전연구회(회장 정시명)에서 백미 10kg 40포, 신성농장(대표 정상길)에서 기름쿠펀(등유 2,200l)을 기부하여 사랑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관내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탁물품을 소성면(면장 유영순) 전 직원들이 대상자에게 직접전달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영순 면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준 분들의 마음을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겠다"며 "이런 나눔문화가 소성면 전체에 확산돼 살기 좋고 아름다운 소성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김대환 기자



남원시, 북한이탈주민과 송년의 밤 행사 개최

남원시는 지난 20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연말을 맞아 따뜻한 정을 느끼고, 지역정착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은 오랜만의 만남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나누며, 만찬과 화합의 장으로 연말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안전면, '안전행복' 모바일 사회복지 상담 창구 개설

진안군 안전면행정복지센터(면장 최방규)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면은 최근 사회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사회복지상담 창구인 '안전행복'을 개설했다.

안전행복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접속해 사회복지 민원 상담과 제보를 할 수 있다.

상담방법은 카카오톡에 '안전행복'을 검색 후 오픈채팅방에서 상담하면 된다. 카카오톡과 달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면사무소 방문으로 개인정보 노출과 상담을 꺼리는 젊은층과 청각, 언어장애 등 몸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진안=우태만 기자



체육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장수군, 체육상 시상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20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2018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해 올해 군민들의 체육발전과 체육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영수 장수군수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레드아플 제조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해 동안 장수군에서 추진하였던 체육행사 동영상을 감상하며 그동안 헌신·봉사한 체육유공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시상식은 2018 동호인리교 왕중왕전 및 체조경연대회에서 종합 1위(체조), 종합 2위(테니스)를 차지한 각 종목단체에 우수단체상을 수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로패는 씨름종목에 김지호 선수가, 전문체육 장학금은 제9회 전국체전에서 단체인 2위(근대5종)를 한 김지훈, 정구종목에 안석주선수가 받았고 각 종목 협회와 읍·면별 체육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총 단체2팀, 개인 23명에게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5년 연속 '우수'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5년 연속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위원회는 매년 공공의료기관(46개)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조사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하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전 직원이 노력하여 2018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전체기관 평균보다 0.61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공개 및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부귀면 백승례씨, 진안사랑장학금 100만원 전달

진안군 부귀면 별빛두레편선 백승례 대표가 지난 21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백 대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정된 면학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길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항로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이 꿈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선뜻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 교육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이항로(가운데)가 백승례씨(오른쪽)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 금과면, 연말 따뜻한 사랑의 쌀 기부

연말연시를 맞아 순창군 금과면에 사랑의 쌀 기탁이 있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평소 넉넉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 온 고재마를 설치원(58)이장이 그 주인공이다. 직접 농사지는 햅쌀을 해마다 기탁을 해왔으며, 올해도 10kg쌀 40포대(100만원 상당)를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금과면은 이번에 기탁 받은 쌀을 관내 경로당과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설치원 이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를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금과면에서 사랑의 쌀을 기부하는 고재마(가운데)이장이 관내 경로당과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가구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권창영 예수병원장, 암센터 건축 기금 500만원 후원

예수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병원 암센터 건축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예수병원 권창영 병원장이 500여만원을 암센터 건축 기금으로 후원했다고 밝혔다.

최근 7년 동안 예수병원에서 하모니카 연주 지원 봉사과 암환자후원회를 후원하는 비조이스 하모니카 봉사회'단원들이 암센터 건축 기금으로 50여만 원을 후원했다.

또한, 지난 9월 6일 암센터 기공식을 한 예수병원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수병원 암센터가 완공되면 지역민의 암치료와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민중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 예수병원 간호부를 비롯 많은 직원들이 암센터 건축기금 후원에 적극적인 힘을 보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양승춘치과 양승춘 원장, 예수병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양승춘치과의 양승춘 원장은 예수병원 발전기금으로 1,000여만원을 보내왔다고 21일 밝혔다.

양승춘 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예수병원 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올 해에도 1,000여만원을 쾌척하며 예수병원의 발전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예수병원에 총 1여억원을 기부했다.

양승춘 치과원장은 "예수병원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손길로 지역사회에 더 큰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창영 예수병원장은 "예수병원에 꾸준한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는 양승춘 원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군산시 경제항만국, 역전경로식당 급식봉사 나서

연말연시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군산시 경제항만국(국장 안창호) 간부공무원들이 나섰다.

안창호 경제항만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16명은 지난 21일 (구)군산 역전경로식당에서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무주군, 올바른 운전문화정착 캠페인 벌여

무주군에서는 지난 21일 무주를 풀 마트 앞 사거리에서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올바른 운전문화정착을 위한 운동은 무주군 애향운동본부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을 위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뿌리내리고 더불어 고향사랑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열린 캠페인에는 무주군 애향운동본부 회원들과 무주군, 무주경찰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전거 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시행과 △능기계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 위해 지켜야 할 '서다, 보다, 걷다', △주간 조조등과 방형지시등 켜기, △차량신호등 지키기, △눈과 줄음운전 근절을 위한 실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20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풍물, 풍타, 합창, 무용, 노래교실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며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가진 주민들이 친목과 교류를 통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선도하며 화합하고 있어 더욱 빛을 발하는 장수군 주민자치센터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면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귀심점이 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